

물리치료과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태도조사

안동전문대학 물리치료과

이 승 주

대구보건전문대학 물리치료과

박 윤 기

A Survey on Attitude Related to Physical Therapy Students' s Clinical Practice

Yi, Seung-Ju, R.P.T., M.P.H.

Dept. of Physical Therapy, Andong Junior College

Park, Youn-Ki, R.P.T., M.A.

Dept. of Physical Therapy, Taegu Junior Health College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an attitude related to physical therapy students' s clinical practic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for 101 third grader(Taegu Junior Health College 66, Andong Junior College 35) from 11th of January to 22th of March. The results are as follow :

A. Frequency classified by item

1. Among preconception and anxiety on the clinical practice, a shortage of knowledge(83.2%) was the highest.
2. Among expectation on the clinical practice, the chance to meet patients directly(94.1%) was the highest.
3. Among anxiety after students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a shortage of knowledge(82.2%) was the highest.
4. Among satisfaction after students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after students graduated college, they will maintain physical therapist' s life continuously(71.3%) was the highest.

B. The variables that showed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variables classified by item are as follow :

1. Between sex and anxiety after students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girl-students(86.7%) showed higher rate than man-students(61.1%) in a shortage of knowledge($P<0.01$).
2. Between religion and expectation on clinical practice, religionists(65.1%) showed higher rate than nonreligionists(44.8%) in the chance to practice love for humanity($P<0.05$).
3. Between religion and anxiety after students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religionist(65.1%) showed higher rate than nonreligionist(56.9%) in not unskillful counsel patients($P<0.01$).
4. Between religion and satisfaction after students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religionist(81.4%) showed higher rate than nonreligionists(63.3%) in pride of major choice($P<0.01$).
5. Between hospitalization experience of family and expectation on clinical practice, students who had hospitalization

- experience of family(79.7%) were higher rate than unexperienced students's(62.2%) in the chance to apply knowledge($P<0.05$).
6. Between hospitalization experience and satisfaction after students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students who had hospitalization experience(68.4%) were higher rate than unexperienced students's(45.1%) in settlement of anxiety($P<0.05$).
 7. Between choice motive of physiotherapy(PT) department and expectation on clinical practice, self-will students(80.5%) showed higher rate than other-will students's(66.7%) in rejoining participate in treatment($P<0.01$).
 8. Between choice motive of physiotherapy department and anxiety after students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self-will students(74.0%) showed higher rate than other-will students's(58.3%) in the wish PT-job in the future($P<0.05$).
 9. Between choice motive of physiotherapy department and satisfaction after students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self-will students(75.3%) showed higher rate than other-will students's(58.3%) in pride on major in physical therapy($P<0.05$).

It was revealed by this survey that girl-students had higher anxiety than man-students in anxiety after students experiences clinical practice, self-will student had higher satisfaction higher than other-will student in the choice of physiotherapy department.

Key Words : Attitude, Physical Therapy, Clinical Practice

I. 서 론

경제사회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교육 및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전국민의료보험 사업이 확대 실시되면서 보건의료수요가 증가되고 있는(박정란, 1991) 지금 물리치료사의 역할은 한층 더 중요하다. 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수단이 물리치료사의 적절한 양과 질적 향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양질의 물리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과배정은 이론과 임상 실습을 골고루 분배하는 것이다.

하영수(1971)는 간호대학 교과과정 구성을 인문사회 과학과정, 기초과학과정, 간호전공과정 등이 골고루 분포하는 것이 좋다고 했고, 조원정(1971)과 한운복(1971)은 일반과목 50%, 전문과목 50%로 보았고, 최상순(1971)은 일반과목 50%, 실습 35%, 건강봉사 15%로 보고하였다. 한편, 김완수(1971)는 공업전문대학과 공과대학 실습시간과 강의시간을 비교조사한 내용에서 전문대학은 강의 50%, 실습 50%이고, 대학은 이론 70%, 실습 30%로 나타나 전문대학의 실습시간이 많았다. 또한 일부 보건전문대학 물리치료과에서도 이론 50%, 실습 50%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점점 시대요청에 따라 현장교육 중심인 임상실습 시간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임상실습교육이란 모든 교과목의 통합체로서 학생이 습득한 지식을 보강 통합토록 하여 지식, 기술, 태도면에 행위변화를 줌으로서(박정란, 1991) 후일 정규 물리치료사로 근무할 때 물리치료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다. 이러한 실습교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실습교육에 흥미를 잃는 일이 많음이 지적되고 있다(김주희, 1982). 김의숙(1981)은 간호학의 만족도가 35~50%, 간호학에 실망한 경우는 67%로 높게 나타났고,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이 71%로 보고하였다. 박정란(1991)은 치과위생학에 만족하는 학생이 12.7%에 불과했고, 휴학이나 자퇴를 고려해 본 학생이 23.2%나 되어 전공학문에 대한 불만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김주희(1982)는 간호학에 흥미를 잃게되는 중요한 이유가 실습에서의 갈등으로 학생 90%가 실습에서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실습이 익숙하고 친근감을 갖고 있는 학교생활에서 낯설은 미지의 세계로 옮기는 일이 되며 이론과 이상을 추구하는 학교생활에서 실습과 현실이 위주가 되는 임상실습에 부딪힐 때 충격이 올 수 있다고 하였다(김미자, 1981).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연구는 간호학과 치과위생학 분야에서 임상실습시 학생들의 태도, 만족도와 불안도, 실습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 등의 많은 선행연구가 있으나, 물리치료과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임상실습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물리치료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실습전의 선입견 및 불안감, 기대감과 실습후의 불안감, 만족감 등을 조사하여 현행 임상실습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시도되었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보건전문대학 물리치료과 3학년 학생 93명과 안동전문대학 3학년 학생 35명을 합한 총 12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1993년 1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10주 동안 2명의 연구자가 설문지(김주희의 설문지 참고)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구보건전문대학생 93명 중 69(74.2%)명과 안동전문대학생 35명 중 35(100%)명이 회수되었고 이 중에서 내용이 부실한 3명을 제외한 총 10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도구는 자기 기입식 조사표를 사용하였다. 조사내용은 일반적인 특성, 임상실습에 대한 선입견 및 불안감, 임상실습에 대한 기대감, 임상실습 경험 후 실습에 대한 불안감, 임상실습 경험 후 실습에 대한 만족감 등이다.

분석방법은 각 변수의 백분율과 각 영역별 변수와 일반적 특성과의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X^2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제한은 대구보건전문대학과 안동전문대학을 중심으로한 조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문대학 전체에 확대 해석 할 수 없다.

III. 성 적

조사대상자 101명의 일반적인 특성 중 성별분포는 남학생이 18(17.8%)명, 여학생이 83(82.2%)명 이었고, 종교는 신자가 43(42.6%)명, 비신자가 58(57.4%)명 이었다. 가족 중 입원경험유무에서 경험이 있는 학생은 64(63.4%)명, 경험이 없는 학생이 37(36.6%)명 이었고, 본인의 입원경험유무는 경험이 있는 경우가 19(18.8%)명, 경험이 없는 경우가 82(81.2%)명 이었다. 가족 및 친척 중 물리치료사 유무에서 있는 경우가 3(3.0%)명, 없는 경우가 98(97.0%)명 이었고, 물리치료과를 선택한 동기가 자의인 학생이 77(76.2%)명, 타의인 학생이 24

표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특 성	구 분	인 수(%)
성 별	남	18(17.8%)
	여	83(82.2%)
종 교	유	43(42.6%)
	무	58(57.4%)
가족입원경험	유	64(63.4%)
	무	37(36.6%)
본인입원경험	유	19(18.8%)
	무	82(81.2%)
가족,친척 중 물리치료사	유	3(3.0%)
	무	98(97.0%)
물리치료과 선택동기	자의	77(76.2%)
	타의	24(23.8%)
합계		101(100.0%)

(23.8%)명으로 나타났다(표 1).

임상실습에 대한 선입견 및 불안감 중 '임상실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불안하다'가 83.2%로 가장 높았고, '배운 지식을 적용하는데 자신이 없다'가 70.3%였고, '임상실습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가 66.3%로 나타났다(표 2).

임상실습에 대한 기대감에서는 '많은 환자를 직접 대할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가 94.1%로 가장 높았고, '임상실습은 물리치료학에 꼭 필요하다'가 88.1%였다.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서 보람을 느낄 것이다'가 83.2%였고, '환자 치료기술이 향상될 것이다'가 81.2%로 나타났다(표 3).

임상실습 경험 후 실습에 대한 불안감 중 82.2%가 '임상실습시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지식의 부족이다'로 응답하여 가장 높았고, 72.3%는 '치료기술의 부족이다'를 응답하였고, 39.6%는 '실장, 물리치료사와의 대인 관계 문제이다'로 응답하였다(표 4).

임상실습 경험 후 실습에 대한 만족감 중 '졸업 후 물리치료사 생활을 되도록이면 하고 싶다'가 71.3%로

가장 높았고, '환자치료 후 봉사로서의 기쁨을 얻었다'가 66.3%였고, '임상실습에 대하여 절대적인 필요성을 가졌다'가 63.4%로 나타났다(표 5).

성별과 임상실습 경험 후 실습에 대한 불안감 중 '임상실습 경험 후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 지식의 부족이었다'에서 여학생이 86.7%로 남학생의 61.1%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표 6).

종교유무와 임상실습에 대한 기대감 중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에서 종교를 가진 학생이 65.1%로 가지지 않은 학생의 44.8%보다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7).

종교유무와 임상실습 경험 후 실습에 대한 불안감 중 '임상실습시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 환자와 대화에 미숙한 점이다'의 항목에서 종교를 가진 학생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65.1%로 종교를 가지지 않은 학생의 56.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의사나 기타 치료요원과의 역할 갈등이었다'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종교인 학생의 69.8%는 비종교인 학생의 50.0%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였다(표 8).

종교유무와 임상실습 경험 후 실습에 대한 만족감에서 '환자치료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다'고 응답한 경우 종교를 가진 학생이 48.8%, 종교를 가지지 않은 학생의 39.7%보다 높은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환자치료 후 봉사로서의 기쁨을 얻었다'에서는 종교를 가진 학생이 72.1%로 비종교인 학생의 62.1%보다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배운 물리치료지식 적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는 종교인 학생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의 60.5%가 비종교인 학생의 50.0%보다 높아 불만족을 나타내었다. '대인관계 적용이 쉬워졌다'에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종교인 학생이 51.2%로 비종교인 학생의 51.7%와 비슷하였으나, 반면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종교인 학생의 30.2%는 비종교인 학생의 8.6%보다 높게 나타났다. '물리치료학을 전공하는데 대한 후회가 된다'중 그렇지 않다고 한 종교인 학생의 81.4%가 비종교인 학생의

63.8%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다(표 9).

가족 중 입원치료를 받은 경험의 유무와 임상실습에 대한 기대감에서 '그동안 배운 지식을 활용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경험이 있는 학생이 79.7%였고, 경험이 없는 학생은 62.2%로 나타나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표 10).

본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경험유무와 임상실습 후 실습에 대한 불안감 중 '물리치료학 전공에 대한 회의를 느낀다'고 한 경우는 경험이 있는 학생이 31.6%로 없는 학생의 6.1%보다 높았고, 그렇지 않다고 한 경우는 경험이 있는 학생이 63.1%로 없는 학생의 68.3%보다 약간 낮았다(표 11).

본인의 입원치료 경험유무와 임상실습 경험 후 실습에 대한 만족감 중 '임상실습 전에 느끼는 불안감이 해소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경험이 있는 학생이 68.4%였고, 경험이 없는 학생은 45.1%로 나타나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만족감이 높았다(표 12).

물리치료과 선택동기와 임상실습에 대한 기대감에서 환자치료에 직접 참여하는 기쁨을 느낄 것이다'라고 한 경우 자의로 선택한 학생은 80.5%였고, 타의로 선택한 학생은 66.7%로 나타나 자의로 선택한 학생의 기대감이 높았다(표 13).

물리치료과 선택동기와 임상실습 경험 후 실습에 대한 불안감 중 '졸업 후 물리치료사로 직장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에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자의의 학생이 74.0%로 타의의 학생 58.3%보다 높아 타의에 의하여 과를 선택한 학생의 불안감이 높았다(표 14).

물리치료과 선택동기와 임상실습 경험 후 실습에 대한 만족감에서 '물리치료학을 전공하는데 대한 후회가 된다'에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자의로 선택한 학생의 75.3%가 타의로 선택한 학생의 58.3%보다 높게 나타나 만족감을 나타내었다(표 15).

표2. 임상실습에 대한 선입견 및 불안감

질 문 내 용	예	아니오	모르겠다	합계
	응답자수(%)	응답자수(%)	응답자수(%)	
임상실습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낀다	67(66.3%)	25(24.8%)	9(8.9%)	101(100.0%)
병원은 병원균이 많은 곳으로 불결함이 연상된다	31(30.7%)	57(56.4%)	13(12.9%)	101(100.0%)
병원은 행동이 제한된 곳이므로 답답한 생각이 든다	50(49.5%)	39(38.6%)	12(11.9%)	101(100.0%)
병원은 주사기와 같은 예리한 기구가 생각난다	35(34.7%)	60(59.4%)	6(5.9%)	101(100.0%)
임상실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불안하다	84(83.2%)	13(12.9%)	4(4.0%)	101(100.0%)
배운지식을 적용하는데 자신이 없다	71(70.3%)	18(17.8%)	12(11.9%)	101(100.0%)
임상실습을 위한 까운차림을 어색하게 생각한다	23(22.8%)	72(71.3%)	6(5.9%)	101(100.0%)
환자들의 나쁜병에 건강이 상할까봐 걱정이 된다	18(17.8%)	71(70.3%)	12(11.9%)	101(100.0%)
특히 성별이 다른 환자를 치료할 일이 걱정된다	27(26.7%)	61(60.4%)	13(12.9%)	101(100.0%)
병원의 많은 직원들과 만나야 할 일이 걱정된다	36(35.6%)	57(56.4%)	8(7.9%)	101(100.0%)
합계	442(43.8%)	473(46.8%)	95(9.4%)	1010(100.0%)

표3. 임상실습에 대한 기대감

질 문 내 용	예	아니오	모르겠다	합계
	응답자수(%)	응답자수(%)	응답자수(%)	
임상실습은 물리치료학에 꼭 필요하다	89(88.1%)	8(7.9%)	4(4.0%)	101(100.0%)
많은 환자를 직접 대할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95(94.1%)	6(5.9%)	0(0.0%)	101(100.0%)
그동안 배운 이론적 지식을 활용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74(73.3%)	11(10.9%)	16(15.8%)	101(100.0%)
환자 치료기술이 향상 될 것이다	82(81.2%)	11(10.9%)	8(7.9%)	101(100.0%)
까운을 입고 임상실습에 나가 보고 싶다	81(80.2%)	8(7.9%)	12(11.9%)	101(100.0%)
환자 치료에 직접 참여하는				

기쁨을 느낄것이다	78(77.2%)	10(9.9%)	13(12.9%)	101(100.0%)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서 보람을 느낄 것이다	84(83.2%)	5(5.0%)	12(11.9%)	101(100.0%)
환자들은 실습생을 좋아할 것이다	25(24.8%)	31(30.7%)	45(44.6%)	101(100.0%)
인류애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54(53.5%)	11(10.9%)	36(35.6%)	101(100.0%)
병원에서 일하는 많은 직원과 대인관계가 넓어질 것이다	69(68.3%)	8(7.9%)	24(23.8%)	101(100.0%)
합계	731(72.4%)	109(10.8%)	170(16.8%)	1010(100.0%)

표4. 임상실습 경험 후 실습에 대한 불안감

질 문 내 용	예 응답자수(%)	아니오 응답자수(%)	모르겠다 응답자수(%)	합계
임상실습시 불안울 느끼는 이유는 지식의 부족이다	83(82.2%)	7(6.9%)	11(10.9%)	101(100.0%)
임상실습시 불안울 느끼는 이유는 환자와의 대화에 미숙한 점이다	33(32.7%)	61(60.4%)	7(6.9%)	101(100.0%)
임상실습시 불안울 느끼는 이유는 실장, 물리치료사와의 대인관계 문제이다	40(39.6%)	53(52.5%)	8(7.9%)	101(100.0%)
임상실습시 불안울 느끼는 이유는 의사가 기타 치료요원과 의 역할 갈등이다	23(22.8%)	59(58.4%)	19(18.8%)	101(100.0%)
임상실습시 불안울 느끼는 이유는 치료기술의 부족이다	73(72.3%)	13(12.9%)	15(14.9%)	101(100.0%)
임상실습 도중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불안했다	4(4.0%)	91(90.1%)	6(5.9%)	101(100.0%)
졸업후 물리치료사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	9(8.9%)	71(70.3%)	21(20.8%)	101(100.0%)
물리치료학 전공에 대한 회의를 느낀다	11(10.9%)	68(67.3%)	22(21.8%)	101(100.0%)
합계	276(34.1%)	423(52.4%)	109(13.5%)	808(100.0%)

표5. 임상실습 경험 후 실습에 대한 만족감

질 문 내 용	예			합계
	응답자수(%)	아니오 응답자수(%)	모르겠다 응답자수(%)	
임상실습에 대하여 절대적인 필요성을 가졌다	64(63.4%)	18(17.8%)	19(18.8%)	101(100.0%)
임상실습 후 폴리치료기술 습득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	57(56.4%)	19(18.8%)	25(24.8%)	101(100.0%)
임상실습전에 느끼는 불안감이 해소되었다	50(49.5%)	24(23.8%)	27(26.7%)	101(100.0%)
환자 치료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다	44(43.6%)	22(21.8%)	35(34.7%)	101(100.0%)
실습까운을 입고 환자앞에 서면 자부심이 생긴다	59(58.4%)	14(13.9%)	28(27.7%)	101(100.0%)
환자치료 후 봉사로서의 기쁨을 얻었다	67(66.3%)	15(14.9%)	19(18.8%)	101(100.0%)
배운 폴리치료 지식 적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16(15.8%)	55(54.5%)	30(29.7%)	101(100.0%)
대인관계 적용이 쉬워졌다	52(51.5%)	18(17.8%)	31(30.7%)	101(100.0%)
졸업 후 폴리치료사 생활을 되도록 하고 싶다	72(71.3%)	9(8.9%)	20(19.8%)	101(100.0%)
폴리치료학을 전공하는데에 대한 후회가 된다	9(8.9%)	72(71.3%)	20(19.8%)	101(100.0%)
합계	490(48.5%)	266(26.3%)	254(25.2%)	1010(100.0%)

표6. 성별 임상실습 경험 후 실습에 대한 불안감

변 수	분 류	성 별		계	X ² -값
		남	여		
임상실습 경험 후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 지식의 부족이었다	그렇다(%)	11(61.1)	72(86.7)	83(82.2)	9.24**
	그렇지 않다(%)	4(22.2)	3(3.6)	7(6.9)	
	모르겠다(%)	3(16.7)	8(9.7)	11(10.9)	
	계	18(100.0)	83(100.0)	101(100.0)	

**P<0.01

표7. 종교유무별 임상실습에 대한 기대감

변 수	분 류	종 교 유 무		계	X ² -값
		유	무		
인류애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다(%)	28(65.1)	26(44.8)	54(53.5)	5.16*
	그렇지 않다(%)	5(11.6)	6(10.4)	11(10.9)	
	모르겠다(%)	10(23.3)	26(44.8)	36(35.6)	
	계	43(100.0)	58(100.0)	101(100.0)	

*P<0.05

표8. 임상실습에 대한 선입견 및 불안감

변 수	분 류	종 교		계	X ² -값
		유	무		
임상실습시 불안을 느끼는 이 유는 환자와 대화에 미숙한 점이다	그렇다(%)	15(34.9)	18(31.0)	33(32.7)	5.58*
	그렇지 않다(%)	28(65.1)	33(56.9)	61(60.4)	
	모르겠다(%)	0(0.0)	7(12.1)	7(6.9)	
	계	43(100.0)	58(100.0)	101(100.0)	
임상실습시 불안을 느끼는 이 유는 의사나 기타 치료 요원 과의 역할 갈등이었다	그렇다(%)	11(25.6)	12(20.7)	23(22.8)	9.89**
	그렇지 않다(%)	30(69.8)	29(50.0)	59(58.5)	
	모르겠다(%)	2(4.6)	17(29.3)	29(28.7)	
	계	43(100.0)	58(100.0)	101(100.0)	

*P<0.05 **P<0.01

표9. 종교유무별 임상실습 경험 후 실습에 대한 만족감

변 수	분 류	종 교		계	X ² -값
		유	무		
환자치료에 어느 정도 자신 감이 생겼다	그렇다(%)	21(48.8)	23(39.7)	44(43.6)	10.04**
	그렇지 않다(%)	14(32.6)	8(13.8)	22(21.8)	
	모르겠다(%)	8(18.6)	27(46.5)	35(36.6)	
	계	43(100.0)	58(100.0)	101(100.0)	
환자치료 후 봉사로서의 기 쁨을 얻었다	그렇다(%)	31(72.1)	36(62.1)	67(66.3)	4.68*
	그렇지 않다(%)	8(18.6)	7(12.1)	15(14.9)	
	모르겠다(%)	4(9.3)	15(25.8)	19(18.8)	
	계	43(100.0)	58(100.0)	101(100.0)	
배운 물리치료 지식 적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그렇다(%)	9(20.9)	7(12.1)	16(15.8)	7.91**
	그렇지 않다(%)	26(60.5)	29(50.0)	55(54.5)	
	모르겠다(%)	8(18.6)	22(37.9)	30(29.7)	
	계	43(100.0)	58(100.0)	101(100.0)	
대인관계 적용이 쉬워졌다	그렇다(%)	22(51.2)	30(51.7)	52(51.4)	10.04**
	그렇지 않다(%)	13(30.2)	5(8.6)	18(17.9)	
	모르겠다(%)	8(18.6)	23(39.7)	31(30.7)	
	계	43(100.0)	58(100.0)	101(100.0)	
물리치료학을 전공 하는데에 후회가 된다	그렇다(%)	9(11.6)	4(6.9)	9(8.9)	7.91**
	그렇지 않다(%)	35(81.4)	37(63.8)	72(71.3)	
	모르겠다(%)	3(7.0)	17(29.3)	20(19.8)	
	계	43(100.0)	58(100.0)	101(100.0)	

*P<0.05 **P<0.01

표10. 가족 중 입원치료 경험 유무별 임상실습에 대한 기대감

변 수	분 류	입원치료경험		계	X ² -값
		유	무		
그동안 배운 이론적 지식을 활용할 기회를 가질것이다	그렇다(%)	51(79.7)	23(62.2)	74(73.3)	5.59*
	그렇지 않다(%)	7(10.9)	4(10.8)	11(10.9)	
	모르겠다(%)	6(9.4)	10(27.0)	16(15.8)	
	계	64(100.0)	37(100.0)	101(100.0)	

*P<0.05

표11. 본인 입원치료 경험 유무별 임상실습 경험 후 실습에 대한 불안감

변 수	분 류	입원치료경험		계	X ² -값
		유	무		
물리치료학 전공에 대한 회 의를 느낀다	그렇다(%)	6(31.6)	5(6.1)	11(10.9)	2.19*
	그렇지 않다(%)	12(63.1)	56(68.3)	68(67.3)	
	모르겠다(%)	1(5.3)	21(25.6)	22(21.8)	
	계	19(100.0)	82(100.0)	101(100.0)	

*P<0.05

표12. 본인 입원치료 경험 유무별 임상실습 경험 후 실습에 대한 만족감

변 수	분 류	입원치료경험		계	X ² -값
		유	무		
임상실습 전에 느끼는 불안 감이 해소되었다	그렇다(%)	13(68.4)	37(45.1)	50(49.5)	5.06*
	그렇지 않다(%)	1(5.3)	23(28.1)	23(22.7)	
	모르겠다(%)	5(26.3)	22(26.8)	22(21.8)	
	계	19(100.0)	82(100.0)	101(100.0)	

표13. 물리치료과 선택동기별 임상실습에 대한 기대감

변 수	분 류	물리치료과 선택동기		계	X ² -값
		자의	타의		
환자 치료에 직접 참여하는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렇다(%)	62(80.5)	16(66.7)	78(77.2)	8.00**
	그렇지 않다(%)	9(11.7)	1(4.2)	10(10.0)	
	모르겠다(%)	6(7.8)	7(29.1)	13(12.8)	
	계	77(100.0)	24(100.0)	101(100.0)	

**P<0.01

표14. 물리치료과 선택동기별 임상실습 경험 후 실습에 대한 불안감

변 수	분 류	물리치료과 선택동기		계	X ² -값
		자의	타의		
졸업후 물리치료사로 직장생 활을 하고 싶지않다	그렇다(%)	8(10.4)	1(4.2)	9(8.9)	5.66*
	그렇지 않다(%)	57(74.0)	14(58.3)	71(70.3)	
	모르겠다(%)	12(15.6)	9(37.5)	21(20.8)	
	계	77(100.0)	24(100.0)	101(100.0)	

*P<0.05

표 15. 물리치료과 선택동기별 임상실습 경험 후 실습에 대한 만족감

변 수	분 류	물리치료과 선택동기		계	X ² -값
		자의	타의		
물리치료학을 전공하는데에 대한 후회가 된다	그렇다(%)	8(10.4)	1(4.2)	9(8.9)	6.52*
	그렇지 않다(%)	58(75.3)	14(58.3)	72(71.3)	
	모르겠다(%)	11(14.3)	9(37.5)	20(19.8)	
	계	77(100.0)	24(100.0)	101(100.0)	

*P<0.05

IV. 고 찰

물리치료과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기 위해 1993년 1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10주 동안 대구보건전문대학 물리치료과 3학년 93명중 69(74.2%)명과 안동전문대학 물리치료과 3학년 35(10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설문지 내용이 부실한 3명을 제외한 10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임상실습에 대한 선입견 및 불안감 중 최고 83.2%로 나와 김소야자(1974)의 정신과 간호실습에 대한 간호대학생과 간호학교 학생들의 태도 비교연구의 성적 90.0% 보다 낮고, 김주희(1982)의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태도 조사의 최고성적인 72.5% 보다 높았다. 주변수로는 '임상실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불안하다', '배운 지식을 적용하는데 자신이 없다', '임상실습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습전에 실습에 대한 편견과 막연한 불안감이 높음을 알 수 있고, 최연순(1974), 김미자(1981), 김의숙(1981)이 지적한 것처럼 임상실습에 대한 선입견과 불안감이 높으면 실습에 대한 흥미를 잃는 일이 많고 기대에 어긋나는 실습으로 인해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내용과 일치하였다.

임상실습에 대한 기대감 중 최고빈도수는 94.1%로 김광주 등(1973)의 학생을 통해 본 내외과간호학 임상교육의 성취도의 연구성적 94.9%와 김주희(1982)의 최고성적 92.5%와 비슷하였다. 주변수로는 '많은 환자를 직접 대할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임상실습은 물리치료학에 꼭 필요하다',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서 보람을 느낄 것이다'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내에서 학과공부에만 치중한 결과 임상병원생활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추상적인 편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상실습 후 불안감은 최고 82.2%로 김주희(1982)의 최고성적 64.6% 보다 높았고, 주요인으로는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지식부족이다', '치료기술의 부족이다', '대인관계의 문제이다'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 기술, 대인관계면이 학생들에게 부족함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한 중점교육이 뒤따라야 된다는 이숙자(1978)의 보고내용과 일치하였다.

임상실습 경험 후 만족감을 최고 71.3%로 김주희(1982)의 성적 66.5%와 비슷하였는데 주변수로는 '졸업 후 물리치료사 생활을 되도록 하고 싶다', '임상실습에 대하여 절대적 필요성을 가졌다', '환자치료 후 봉사로서의 기쁨을 얻었다', '임상실습 후 물리치료기술 습득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습경험 후 비교적 높은 만족감을 얻었으나 임상실습 전의 기대감 중에서 최고의 성적인 94.1% 보다 현저히 낮아 실습전의 편견과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이 실습후에 많이 감소된 것으로 생각된다.

각 영역의 변수와 일반적 특성과의 관련성 여부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여준 변수는 다음과 같다. 성별과 임상실습 경험 후 실습에 대한 불안감 중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지식의 부족이다'는 여학생이 86.7%로 남학생의 성적 61.1%보다 높게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불안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문대학 물리치료과 학생의 성적분포 중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비교적 성적이 우수하여 실습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여성특유의 민감성으로 인하여 불안감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종교유무와 임상실습에 대한 기대감 중 '인류애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의 항목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응답이 65.1%로 가지지 않은 학생의 성적 44.8%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종교에 의한 봉사정신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종교유무와 임상실습 경험 후 실습에 대한 불안감에서 '임상실습시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환자와 대화에 미숙한 점이다'를 그렇지 않다고 긍정적으로 대답한 종교인 학생이 65.1%로 비종교인 학생의 성적 56.9%보다

높았다. '의사나 기타 치료요원과 의 역할 갈등이었다'에서 종교를 가진 학생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69.8%로 종교를 가지지 않은 학생의 성적 50.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종교를 가진 학생이 종교를 가지지 않은 학생보다 불안감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종교유무와 임상실습 후 실습에 대한 만족감은 종교를 가진 학생이 비교적 높았는데 '환자치료에 어느정도 자신감이 생겼다'에서 종교를 가진 학생의 성적 48.8%는 종교를 가지지 않은 학생의 성적 39.7% 보다 높았다. '환자치료 후 봉사로서의 기쁨을 얻었다'는 종교인 학생의 72.1%로 비종교인 학생의 62.1% 보다 높게 나타나 비교적 만족감을 보였다. '배운 물리치료지식 적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에서는 종교인 학생의 60.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비종교인 학생의 50.0% 보다 높게 나타나 불만족을 표시한 반면에 그렇다고 응답한 종교인 학생의 20.9%는 비종교인 학생의 12.1%보다 약간 높게 나왔다. '대인관계 적용이 쉬워졌다'에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종교인 학생의 성적 51.2%와 비종교인 학생의 성적 51.7%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물리치료학을 전공하는데 후회가 된다'에서 그렇지 않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종교인 학생의 성적 81.4%는 종교를 가지지 않은 학생의 성적 63.3% 보다 높게 나와 종교를 가진 학생이 불만족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종교가 있는 학생이 불안감이 적고 기대감은 높으며 실습 후 만족감이 높음을 알 수 있고 종교가 사람에게 안정감과 기대감, 현실충족감을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김주희(1982)의 내용과 일치하였다.

가족중 입원치료경험유무와 임상실습에 대한 기대감에서 '그동안 배운 이론적 지식을 활용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중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은 가족이 입원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으로 79.7%를 보였고, 경험이 없는 학생은 62.2%를 나타내어 경험이 있는 학생은 과거에 가족의 좋지 못한 건강을 경험에 비추어 스스로 치료기술을 익혀 임상생활에 적용하려는 희망이 더 큰 것으로 생각된다.

본인의 입원치료 경험유무와 임상실습 경험 후 실습에 대한 불안감에서 '물리치료학 전공에 대한 회의를 느낀다'에서 입원치료 경험이 있는 학생의 성적 63.1%는 그렇지 않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경험이 없는 학생의 성적 68.8%와 비슷하여 입원치료 유무는 불안감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본인의 입원유무와 임상실습 경험 후 실습에 대한 만족감 중 '임상실습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이 해소되었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의 성적 68.4%는 경험이 없는 학생의 성적 45.1%보다 높게 나와 입원경험이 있는 학생이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높은 만족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인이 입원해 있을 때의 경험이 실습 기간중에 입원하지 않았던 학생보다 실습적용이 빨랐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리치료과 선택동기와 임상실습 기대감 중 '환자치료에 직접 참여하는 기쁨을 느낄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물리치료과를 자의로 선택한 학생으로 80.5%였고, 타의로 선택한 학생의 성적은 66.7%로 나와 자의로 선택한 학생의 기대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물리치료과 선택동기와 임상실습 경험 후 실습에 대한 불안감에서 '졸업 후 물리치료사로 직장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자의로 선택한 학생으로 74.0%를 보였고, 타의로 선택한 학생은 58.3%를 나타내어 자의로 선택한 학생이 불안감이 적었다. 물리치료과 선택동기와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감 중 '물리치료학을 전공하는데 대한 후회가 된다'를 자의로 선택한 학생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75.3%로 타의에 의해서 선택한 학생의 성적 58.3%보다 높게 나와 자의로 선택한 학생의 만족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의로 선택한 학생이 실습에 대한 기대감과 실습 후 만족감이 높고 실습 후의 불안감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오송자 등(1989)의 간호대학생의 자아개념과 임상생활 만족도와 관련연구 성적에서 간호학과의 선택동기가 자의인 학생은 타의에 의한 학생보다 실습에 대한 만족감이 통계적으로 높다고 보고하였고, 이숙자(1978)는 타의에 의해 간호학과를 선택한 집단이 자의로 선택한 집단보다 학과에 대한 흥미를 잃고 그만두려는 경향이 더 심한 것으로 보고하여 본 조사성과 일치하였다.

이상의 본 조사성적은 우리나라 전문대학 물리치료과 3학년 학생 모두에게 확대 해석할 수는 없으나, 임상실습 후 불안감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물리치료과를 타의로 선택한 학생이 자의로 선택한 학생보다 만족감이 낮고 불안감이 높았으며, 종교를 가지지 않은 학생이 가진 학생보다 실습에 대한 관심이 적고 전공선택금지도 적어 이를 고려한 실습교육제도와 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V. 요 약

물리치료과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기 위해 1993년 1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10주 동안 대구보건전문대학 물리치료과 3학년 66명과 안동전문대학 3학년 35명의 총 10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각 영역별 빈도수

1. 임상실습에 대한 선입견 및 불안감 중 '지식부족'이 83.2%로 가장 높았다.
2. 임상실습에 대한 기대감 중 '환자를 직접 대할 수 있는 기회'가 94.1%로 가장 높았다.
3. 임상실습 경험 후 불안감 중 '지식부족'이 82.2%로 가장 높았다.
4. 임상실습 경험 후 만족감 중 '졸업후 물리치료사 생활유지'가 71.3%로 가장 높았다.

B. 각 영역별 변수와 일반적 특성과의 관련성이 유의하게 나온 변수

1. 성별과 임상실습 경험 후 실습에 대한 불안감 중 '지식부족'은 여학생의 86.7%가 남학생의 61.1%보다 높았다($P < 0.01$).
2. 종교유무와 임상실습에 대한 기대감 중 '인류에의 실천기회'는 종교를 가진 학생의 65.1%가 종교를 가지지 않은 학생의 44.8%보다 높았다($P < 0.05$).
3. 종교유무와 임상실습 경험 후 실습에 대한 불안감 중 '환자와 대화미숙'은 종교를 가진 학생의 65.1%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종교를 가지지 않은 학생의 56.9%보다 높게 나와 종교를 가지지 않은 학생의 불안감이 높았다($P < 0.05$).
4. 종교유무와 임상실습 경험 후 실습에 대한 만족감 중 '전공선택의 궁지'는 종교인 학생의 81.4%가 비종교인 학생의 68.3%보다 높았다($P < 0.01$).
5. 가족중 입원치료 경험유무와 임상실습에 대한 기대감 중 '이론지식의 활용기회'는 유경험 학생의 79.7%는 무경험 학생의 62.2%보다 높았다($P < 0.05$).
6. 본인의 입원치료 경험유무와 임상실습 경험 후 실습에 대한 만족감 중 '불안감의 해소'는 유경험 학생의 68.4%가 무경험 학생의 45.1%보다 높았다($P < 0.05$).
7. 물리치료과 선택동기와 임상실습에 대한 기대감 중

'치료참여의 기쁨'은 자의로 선택한 학생의 성적 80.5%는 타의로 선택한 학생의 66.7%보다 높았다($P < 0.01$).

8. 물리치료과 선택동기별 임상실습 경험 후 실습에 대한 불안감 중 '졸업 후 물리치료사로 직장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에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자의의 학생이 74.0%로 타의의 학생 58.3%보다 높았다($P < 0.05$).
9. 물리치료과 선택동기별 임상실습 경험 후 실습에 대한 만족감 중 '물리치료학을 전공하는데 대한 후회가 된다'에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자의로 선택한 학생의 75.3%가 타의로 선택한 학생의 58.3%보다 높았다($P < 0.05$).

이상의 본 조사성적 결과에 의하면 실습 후 불안감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고, 물리치료과를 타의로 선택한 학생이 자의로 선택한 학생보다 만족감이 낮고 불안감이 높아 이를 고려한 실습교육계획과 실시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I. 참고문헌

1. 김광주, 이영자, 최공옥: 학생들을 통해 본 내외과 간호학 임상교육의 성취도. 대한간호 12(4), pp 65-80, 1973
2. 김미자: 현실충격. 대한간호 10(2), pp63-65, 1981
3. 김소야자: 정신과 간호실습에 대한 간호학생과 간호학교 학생들의 태도비교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4(2), pp17-29, 1974
4. 김육란: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관한 조사 연구. 김천간호전문대학논문집 제9집, pp161-184, 1981
5. 김완수: 공업고등전문학교의 교육내용. 대한간호 10(2), pp54-55, 1971
6. 김의숙: 미래요구에 부응하는 간호교육. 대한간호 20(4), pp50-59, 1981
7. 김주희: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태도조사 연구. 대한간호 21(1), pp 45-55, 1982
8. 박정란: 전문대학 치위생과 학생의 전공과 및 임상실습에 대한 태도.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pp 1-34, 1991
9. 양영희: 간호전문제의 바람직한 임상실습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경기간호보건전문대학논문집, pp

323-351, 1990

10. 오송자 : 공수자, 박명희 : 간호대학생의 자아개념과 만족도와 관계연구. 조선대학교병설 간호전문대학논문집, 제10집, pp47-56, 1989
11. 이기숙 : 서울시내 간호전문학교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 관한 태도조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pp1-50, 1977
12. 이숙자 :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pp1-50, 1977
13. 조결자, 강현숙 : 일부 간호대학생의 자아개념과 임상실습 만족도와와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14(2), pp63-74, 1989
14. 조경순 : 간호교육에 대한 일부 간호학생들의 태도조사. 대한간호 16(6), pp56-70, 1977
15. 조원정 : 교과과정 구성안. 대한간호 10(2), pp59-61, 1971
16. 최상순 : 교과과정 구성. 대한간호 10(2), pp62-64, 1971
17. 최연순 : 임상간호에 있어서의 변화와 그 계획. 대한간호 13(5), pp39-43, 1974
18. 하영수 : 간호교육과정의 구성. 대한간호 10(2), pp56-57, 1971
19. 한윤복 : 교과과정 구성안. 대한간호 10(2), pp58-59, 1971